

세계 평화와 미래 향한 발걸음

‘평화의 메아리’ 인문교류 행사 서울에서



▲ 한국 주재 중국대사 대변

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과 서울중국문화센터, 한국 국립대한민국립시정부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평화의 메아리’ 인문교류 행사 한국 특별전이 지난 8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선전부 부부장 겸 중앙라디오 텔레비전방송총국 국장 심해웅과 전 한국 국회의장 김진표가 영상 축사를 했다. 또한 한국 주재 중국대사 대변, 한국 독립운동가 김구선생의 손자 김양, 한국 《아시아경제》 사장 양규현, 한국 국립대한민국립시정부기념관 관장 김희곤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 국제문화교류원 원장 송기출, 한국 국립대한민국 립시정부기념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민영백, 독립운동가 조소앙선생의 손자 조인래, 오희옥녀사의 아들 김홍태와 한국 정계, 사학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등 200여명의 귀빈들이 참석했다.

심해웅은 축사에서 습근평 주석은 “역사의 기억과 진실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영원히 현실을 비추고 미래를 밝혀준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80년전, 중국공산당이 주도하고 설립한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기발 아래 중국인민들은 불굴의 자세로 피 흘리며 싸웠고 전세계의 정의로운 력량과 함께 적개심을 품고 서로 지원하며 함께 파쇼를 물리치고 감동적인 영웅서사시를 썼다. 오늘 우리는 국제인사들을 행사 현장에서 초대하여 함께 싸웠던 그 격동의 세월을 추억하고 시공을 초월한 감정적 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영광

이다. 지난 일을 잊지 말아야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역사는 가장 좋은 교과서이다.

변화로 가득찬 오늘날, 우리는 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함께 도전에 맞서야 한다. 역사를 기억해야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 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은 모든 플랫폼 및 다국어로 항전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를 충실히 보도할 것이다. 《승리》, 《산하를 증거로》, 《항복을 받다》, 《공동의 사명》과 같은 명작들을 선보이며 진실한 영상으로 올바른 제 2차 세계대전 역사관을 선양하여 공평과 정의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도록 할 것이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 대변은 오늘날 세계는 변란이 교차하고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 국가와 세력은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하며 침략 전쟁과 만행을 미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해 국가와 고통받는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국제 공평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이다. 80년전, 우리는 함께 일본군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으며 피와 생명으로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켰다. 80년후, 우리는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고 량국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주었다. 건 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

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되며 량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도 부합된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굳건한 이웃 우호의 방향을 견지하며 상호 리익과 윈윈의 목표를 견지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전 한국 국회의장 김진표는 영상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세기 상반기,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많은 조선반도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여러 항일 단체를 설립했으며 중국의 항일 단체와 혁명가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다. 한중 량국 인민들이 피로 맺은 깊은 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중 량국 인민들이 우정을 깊게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한 량국의 항전 주제 영화작품들도 상영될 예정이다. 이런 영화들은 예술적인 수단을 통해 중한 량국의 공동 항전 기억을 재현했는바 역사에 대한 귀중한 기록이자 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과 이웃 나라간의 서로 돕는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 독립운동가 김구선생의 손자인 김양은 할아버지가 조선반도의 독립사업을 위해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27년간 항일투쟁을 벌인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2025년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자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했다. 김양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중 량국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평화의 메아리’ 인문교류 행사를 통해 잊어서는 안될 그 역사를 함께 추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가해자들이 역사를 외곡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진실은 결국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리해하고 진실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권기식은 80년전 한중 량국이 나란히 항일투쟁을 벌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교이래 한중 량국은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공동으로 발전하여 지역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면 이번 행사에서 상영되는 영상 작품들은 한중 인민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여 항전하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고 말했다.

한국 《아시아경제》 사장 양규현은 이번 행사는 한중 량국 인민들이 함께 항전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 회생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중 량국이 역사를 거울삼고 미래로 나아가 우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립대한민국립시정부기념관 관장 김희곤은 한중 두 나라 인민이 나란히 항전한 빛나는 역사를 깊은 정회를 담아 돌아보았다면서 20세기 초반 조선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다수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으며 중국인민도 깊은 정과 성심 어린 원조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립시정부가 수립되며 한중 두 나라 혁명지사들의 우의는 더욱 깊어졌다. 오늘날 한중 두 나라는 교류 및 협력이 밀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행사가 두 나라 인민이 상호 리해를 증진하고 우의를 심화하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라고 표시했다.

현장에서는 《남경사건관》, 《동극섬》(东极岛), 《리스본 침몰》(里斯本丸沉没) 등 중국항일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의 주요 장면을 상영하는 코너를 특별히 마련했다. 중한 량국 예술가들은 《태행산에서》(在太行山上) 등 항일전쟁시기 항전 노래를 불렀다.

한편,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중한 영화제 개막식이 같은 날 개최되었으며 《자일》(紫日), 《바람소리》(风声) 등 중한 량국의 항일 주제 영화를 상영했다.

한국 《조선일보》, 《아시아일보》, 일본 ‘Record China’ 웹사이트, 필리핀 《상보》(商报), 파키스탄 《단결보》와 파키스탄 경제망, 네팔 광신신문망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 주요 매체들이 이번 행사를 보도했다. / 중앙방송뉴스

조선족상모춤

신강 무형문화유산 행사서 빛나다



최근, 신강 화전의 약특간고성(约特干古城)에서 열린 ‘신강은 좋은 곳’ 무형문화유산 지인 전시 행사에서 왕청현문화관의 조선족상모춤 <풍년의 기쁨>이 큰 주목을 받았다.

문화관광부와 신강위글자지구인민 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25개 성의 435개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와 383명의 전승자가 참여한 가운데 왕청현 상모춤 프로젝트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더 많은 관객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연계와 전시·공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향연을 선사했다.

왕청현문화관 출연자들은 약특간고성 주회장에서 관객들을 위해 4일 연속 멋진 공연을 펼쳤으며 화전단성력사문화거리(和田团城历史文化街区)와 야시장 등 분회장에서도 현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교류했다. 상모춤

출연자들은 아름다운 춤사위로 상모춤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을 촉진했다. 현장에서 출연자들은 또 관객들에게 왕청현 관광 추천 수첩을 배포하며 고향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유산 공연과 문화교류 등을 통해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풍부한 내포를 충분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문화의 상호 학습과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강화에 강력한 문화적 힘을 불어넣었다.

앞으로도 왕청현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작업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사회적 효과의 양적 향상을 추진하여 무형문화유산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새시대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 연변뉴스넷

동만항전력사기념관, 왕청현서 개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동만 지역의 빛나는 항전 역사를 담고 있는 동만항전력사기념관이 지난 8월 19일 길림성 왕청현에서 정식으로 개관했다.

이번 개관식은 연변주당위 선전부,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로인사업촉진회, 왕청현당위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동만항전력사기념관의 설립은 동만지역의 홍색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혁명전통교육 및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왕청현 특색의 ‘홍색문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동만항전력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튼실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만항전력사기념관의 전신은 2021년 6월에 완공, 개방된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로 1만 5,000평방미터

의 부지면적에 3,780평방미터의 건축면적, 2,400평방미터의 전시면적을 갖추었다. 2024년 11월, 동만항전력사기념관은 중공중앙 선전부에 정식 등록되어 지역 홍색문화사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5년 6월, 길림왕청애국주의교양센터는 길림성당위 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의 비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동만항전력사기념관’ 간판을 달았다.

향후 이곳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에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동만지역에서 써내려간 파란만장한 항전 서사시를 전시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피와 생명으로 굳건히 세운 위대한 항전정신과 동북항일련군 정신을 생동감 있게 해석함으로써 중요한 역사 증언이자 교양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연변뉴스넷

图说 我们的价值观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民主 文明和谐
自由平等 公正法治
爱国敬业 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